

에스캠
구분관
대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하는 기술력 강자

MP3플레이어, PMP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 제조업체 에스캠이 자가 모델인 '쏘렐' 중심의 기업 경영을 선언했다.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업계의 강자로 성장해 온 에스캠의 성공스토리 2장의 막이 오른 것이다. 구분관 대표가 밝히는 당찬 포부를 들어보았다.

설

립 8년째를 맞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 제조업체 에스캠은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지금껏 회사의 내실을 다지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올해부터는 미국 나스닥 시장 진출 등 회사를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매출 1200억원대를 기록한 자신감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라는 직원들의 의지가 회사의 성장 가도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MP3플레이어, PMP 등을 생산하는 에스캠은 올해 도약을 위해 자가 생산 모델인 '쏘렐(Sorrel)'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할 전략을 세웠다. 전체 생산 중 위탁생산(EMS) 비중을 40% 선으로 낮추고 대신 '쏘렐'의 생산 비중을 60%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위탁생산 비율이 80%까지 육박했을 정도로 EMS 사업은 그동안 회사를 성장시킨 큰 버팀목이었다. 때문에 그 비중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구본관 대표는 그만큼 회사가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쏘렐'을 생산한 지 3년이 넘어 이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타 업체 제품의 생산을 맡으며 우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발하고 직접 생산한 제품을 앞세워 경쟁에 나설 것입니다."

자가 브랜드 제품 생산 비중 늘려

에스캠은 1998년 10월 당시 삼성전자 캠코더 사업팀 지원그룹장이었던 구본관 대표가 디지털 기기 제조기업으로 분사한 회사다. 삼성전자에서 190여 명의 생산 인력과 제조 시스템을 가져왔다는 점 때문에 설립 초창기에는 삼성전자 측이 연구개발한 캠코더 생산이 주를 이뤘다. MP3플레이어 생산도 삼성전자의 제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이어받은 점은 사업 초창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재, 설비, 제조기술 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고, 그에 따른 생산 기술의 공신력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설립 이후 3년여를 위탁생산에 주력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비전을 향상시키고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대표는 직접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2001년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자체 제

품 개발에 돌입한 것이다. 그리고 2002년 8월 자가 모델인 MP3 CD 플레이어 'SORELL SMP-140'을 출시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2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향상됐다.

"제조전문업체로 출발해 생산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니 시스템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MS의 경우 저희 회사와는 관계없이 바이어의 요구에 의해 변화가 심했거든요. 자재 재고 조절도 쉽지 않았지요."

에스캠의 제품은 국내 디지털 기기 시장에서 PMP 선두권, MP3플레이어 4~5위를 유지하고 있다. '쏘렐'의 가장 큰 장점은 타 제품과는 차별화된 동영상 기능이다.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동영상 기능이 접목된 MP3플레이어를 생산해 내는 쾌거를 이뤘다. PMP의 경우도 캠코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제품을 개발했다. 영화 관람,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은 물론 어학공부까지 가능한 컨버전스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지난 7월 독일 가전사와 350만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는 등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차별화된 동영상 기술로 승부

에스캠은 자가 모델 개발에 있어 앞으로도 동영상에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대기업 캠코더 사업팀에 몸담았던 구본관 대표의 경력, 캠코더 개발과 제조에 일가견이 있는 인력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동영상 기능은 우리 회사의 자존심입니다. 같은 동영상을 재생하는 기기라도 화질에서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죠. 동영상을 중심으로 우리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에스캠은 기존의 제품에 DMB,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로 탑재된 PMP와 복합형 MP3플레이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10월쯤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심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 시장. 자신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차별화된 기술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지속되는 한 에스캠의 발전은 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우리의 'Digital Life'를 한층 진화시켜줄 것이라 믿는다.